

스님들의 어록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써

‘선의 전성기’ 선사들의 격외도리 ‘격외’로 읽기

대부분의 불자들이 선어록(禪語錄)을 즐겨 읽는다. 그러나 선어록은 위험한 책이다. 선이 갖는 격외(格外)의 기록들이기 때문이다. 격외란 일상적이지 않다. 의외적이고 돌발적이다. 선어록은 선사들의 격외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선불교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깨달음이란 불자의 목표 자체도 잘못 설정될 수밖에 없다. 선어록은 잘 읽기가 쉽지 않다. 격외의 도리를 암호처럼 기록한 것이 선어록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대의를 묻는 질문에 “마른 똥막대기”라거나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는 대답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은 ‘원래 어려운 것이니까’ 혹은 ‘어차피 암호니까’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선어록을 읽는다. 그러한 독서법이 마침내 자신의 눈을 밝게 하기는커녕 더 큰 어둠으로 자신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정반대의 조화>는 선어록들에 나오는 여러 텍스트들에 대한 저자의 ‘다시 읽기’ 내지는 ‘되받아 쓰기’의 기록이다. 선어록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견해를 담았다. 물론 새로운 견해라는 것조차도 선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언어로 기록되어 전해오는 옛 선사들의 정신이 오늘의 수행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조화>는 기존의 선어록 해설서와는 분명 다르다. 기존의 선서(禪書)들은 대부분 어록에 전해지는 텍스트의 내용을 ‘공장’의 입장에서 바라봤다. 어록에 전하는 일화나 예화 화두들을 수긍하는 입장에서 그 뜻을 펼치거나 여러 가지 보조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경험담들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선사들의 어록에 대해 연중엔 절대로 훼손할 수 없는 권위가



정반대의 조화(상 하)
석진오 지음
현대불교신문 펴냄 | 각권 1만 5000원

있다는 착각까지 형성시킨 것이다. <정반대의 조화>는 “다시 읽기” 내지는 ‘되받아 쓰기’의 기록이라는 필자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6조 혜능의 직계제자인 청원행사 선사로부터 9세기 말의 선사사비 선사에게 이르기까지 200여 년 간 활동한 ‘돈오선의 절정기’ 스님들의 어록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읽고 풀고 쓴 것이다.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자는 선사들의 어록을 ‘부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부정’ 혹은 ‘배척’한 각도에서 텍스트를 점검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사들이 전하는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정반대의 조화>를 펴낸 진오 스님은 선어록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지나치게 규격화된 폭과 깊이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님의 원고작업은 다소의 저항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해석의 새로운 층에서 오는 저항일 수도 있고 진리의 근원에 대한 견해 차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 차이와 저항이 저자의 잘못은 될 수 없다. 선사들의 어록 자체가 ‘격외’의 모순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를 풀어내는 방법의 차이를 두고 알기 어렵다는 것도 우순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은 후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원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불교공부는 고정적인 지식의 관념적인 체계가 아니라 항상 나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생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스님들의 행자시절 통해 참된 가르침 느껴져

나의 행자시절 1·2·3 박원자 엮음 | 다솔미디어 펴냄 | 각권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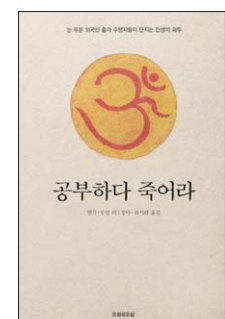


해인사 스님들이 펴내는 월간 <해인>에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연재된 112명 스님들의 행자시절 이야기 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동국대 영적위원을 역임한 박원자씨가 발품을 팔아가며 짚지 않은 세월동안 전국 사찰의 스님들을 만나서 전해들은 맑고 순수한 행자시절의 이야기들을 담았다. 대부분 스님들의 행자시절은 고생으로 점철돼 있지만 내적으로는 불가에 들어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행자시절의 애환과 인간적인 모습도 솔직하게 표현돼 있다. 해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출가한 뒤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짓는 일이 너무 힘들어 피병을 부리며 하루종일 누워

있던 일화를 소개했다. 스승들의 엄격한 행동이 수행생활 하는데 큰 지표가 됐던 일화도 있다. 현각 스님(강릉 대성사 주지)은 한양 큰스님이 사라져서 온 절의 대중들이 찾아 나섰다가 수채 구멍에서 수려여행 학생들이 버린 밥의 쌀을 한 알 한 알 깨끗이 씻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점차 ‘중(僧)’이 들었다고 말한다. 해인 스님(단양 광덕사 주지)은 성철 스님의 ‘명심해라. 지금까지 절하다 죽은 놈 없고 절하다 죽더라도 지옥은 안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번 시작했으면 멋지게 회향해야 한다’는 말씀에 100만배를 마치고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대다수 스님들의 기억속에는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만공, 한암, 효봉, 청담, 성철 스님 등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배어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법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실천하려는 큰스님들의 모습과 그것을 몸에 익히려는 중진이 된 스님들의 행자시절 모습을 통해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된다. 김주일 기자

해암 스님이 설파한 화두이자 마지막 열반송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무량 외/청아·류시화 옮김 | 조화로운 삶 펴냄 | 1만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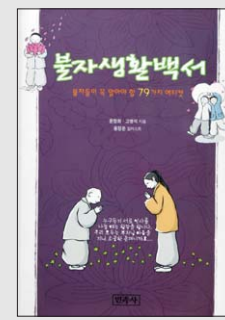


2003년 11월 9일, 대전 자광사에서 파란 눈의 수행자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이색 법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피부색도, 언어도 심지어는 종교도 모두 달랐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었다. 불법을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이다. 이듬해 9월까지 매일 둘째주 일요일마다 법회는 계속 되었다. <공부하다 죽어라>는 그 당시 감동 법문을 한국말로 번역해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에는 왜 그들이 미래가 보장된 삶을 포기했는지, 또 결국 그들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자광사 주지 청아 스님과 류시화씨가 벽안(臂眼)의 수행자들이 던진 삶의 화두를 하나하나

충실하게 옮겼다. 책에 등장하는 설법자들은 모두 심상치 않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이와 국적을 불문한 사람들에게 불교의 ‘도(道)’를 전파하는 젊은 지성 11명은 한때 하버드·에일·코넬·소르본대학 등을 나와 촉망받던 인재들. 하지만 그들은 서양의 종교와 철학에서 정신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출가수행의 길을 선택했다. 에일대와 하버드대 대학원을 나왔지만 1990년 승산 스님을 만나 출가한 현각 스님이 수행하며 깨달은 것은 ‘무상’의 진리다. 현각 스님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 변화를 막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무상의 진리에 관해 명상해야 한다”고 설법한다. 설법자 중에는 달라이 라마의 제자인 스위스 제네바 출신 계승 티베트 문도도 있었다. 현재 뉴욕 티베트센터 책임자인 그는 “자비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 무지를 제거하려는 열망”이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불자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불자생활백서 윤창화·고명석 지음 | 민족사 펴냄 | 9800원



아주 기본적인 것은 잊어지거나 무시되기 쉽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생기는 균열은 크다. 처음부터 크지 않더라도 점점 균열의 틈새가 넓어져 마침내 불합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간다. 소위, ‘기초질서’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 돌이킬 수 없는 곳에서 바로잡으려 발버둥치는 ‘기본’들이 어디 한 둘인가?

불자들의 생활에 절대 마땅하지 않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아 불자의 생활이 불자답지 못하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불교 출판계의 대표 윤창화 민족사 대표와 조계종 포교연구소 고명석 선임연구원이 함께 쓴 <불자생활백서>는 불자가 불자답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들을 추려서 해설한 책이다. 자신 만만하진 않더라도 꼭 읽고 기본기를 닦아야 할 책이다.

그렇다고 합장은 이렇게 하고 삼배는 이렇게 하라는 종류의 행동규범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참된 불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신적인 자세를 더 강조하고 있다. 기본이란 바로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늬만 불자가 되지 말자’ ‘내가 믿는 불교의 가치를 정리하자’ ‘불교계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1부 이상 구독하자’ 등의 주제들이 이 책의 ‘탄생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현대불교에 카툰 ‘I love 붓다’를 연재했던 윤정운씨의 삽화가 재미와 이해를 돕는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절을 가져가 잘하는 법	청건	붓다의 마을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활호	마음의 숲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부루나의 노래	법현	운주사
6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7	사찰 100미 100선	하균	불교신문사
8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문	정토
10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에만

※서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精確한 論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정구증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불교서점

금강禪院·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풍기 정품 홍삼 액기스 판매

100ml×60포
(한달분)
20여종 제품 판매

판매처 054)634-3429 휴대폰 011-9373-3778
E-Mail: pay3579@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 (예금주: 박영애)

대리점 운영하실분
(물품대 백만원으로 생활고 보장)

여름철 풍기 인견옷, 인견이불, 몸매, 난방 판매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제품 - 스님, 불자님께는 특혜드림